

사마귀 클리닉 내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윤정민^{1,2)} · 신상호²⁾ · 윤화정²⁾ · 고우신²⁾

¹⁾ 브이스킨한의원

²⁾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학교실

A Statistical Study of Patients visited Wart Clinic

Jeong-Min Yun · Sang-Ho Shin · Hwa-Jung Yoon · Woo-Shin Ko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warts.

Methods : We conducted statistics study on 100 patients, who had visited to Wart Clinic, from September 2008 to February 2009.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wart was found more often from female(64%) than from male(36%). The age distributions of patients showed highest in 21-30 years, followed by 31-40 years, and 11-20 years.
2. The distributions of duration of warts showed highest in 1-5 years, followed by 6-10 years, and over 10 years.
3. The most common warts were Verruca plana(48%), Verruca vulgaris(25%), Verruca vulgaris with Palmoplantar wart(14%), Verruca plana with Verruca vulgaris(9%).
4. The Verruca vulgaris was found mostly in the hand, whereas the Verruca plana was seen mostly in the face.
5. Laser therapy was the most common previous treatment, followed by cryotherapy, immunotherapy in order.
6. The distributions of duration of treatment showed highest in 1-4 weeks, followed by 5-8 weeks, 9-12 weeks in order.
7. After treatment, 43 cases(43%) showed complete clearance, and 29 cases(29%) showed partial clearnace.

Conclusion :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warts.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to develop the better treatment on warts.

Key words : Wart, Verruca plana, Verruca vulgaris, Palmoplantar wart

교신저자 : 윤화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Tel : 051-850-8658, E-mail : yhj1226@deu.ac.kr)

• 접수 2009/07/13 • 수정 2009/08/06 • 채택 2009/08/12

서 론

사마귀는 human papilloma virus(HPV)에 의해 유발되는 양성종양으로 임상에서 심상성사마귀, 편평사마귀, 수장족저사마귀 등으로 분류된다^{1,2)}. 사마귀는 전체 피부과 내원 환자의 2.2-2.4%를 차지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3,4)}, 전기소작법, 레이저치료, 냉동요법, bleomycin 주사, 살리실산 도포요법, Cimetidine 투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양하고 같은 치료법인 경우에도 보고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다^{2,5-8)}.

사마귀는 한의학의 역대 문헌에서 千日瘡, 癩子, 扁瘻, 疣目, 枯筋筋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고²⁾ 《諸病源候論》에서는 “疣目者 人手足邊忽生如豆 或如結筋 惑五介 惑十介相連肌里 粗强于肉 謂之疣目”, 《外科正宗》에서는 “枯筋筋 …… 初期如赤豆大 枯点微高 日久破裂 出筋頭 蓬松枯槁” 라고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¹⁾. 그 외에도 《醫宗金鑑》, 《醫學入門》, 《外科啓玄》, 《薛氏醫案》 등 많은 문헌에서 사마귀의 증상 및 원인, 병리, 치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²⁾, 최근에는 윤⁹⁾, 정¹⁰⁾, 윤¹¹⁾ 등이 사마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험례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마귀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브이스킨한의원 사마귀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이에 대하여 성별, 연령, 유병기간, 사마귀의 종류, 병변부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효과 등을 분석, 고찰하여 향후 사마귀 연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브이스킨한의원의원 사마귀 클리닉에 사마귀로 내원한 신환 중에 심상성사마귀, 수장족저사마귀 및 편평사마귀로 진단받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xviridae과에 속하는 molluscum contagiosum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연속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방법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성별, 연령, 유병기간, 사마귀의 종류, 과거에 받았던 치료법, 사마귀 분포 부위,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사마귀로 내원한 환자 100명 중에서 남자는 36명, 여자는 6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연령 분포는 3세에서 59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25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10대의 순이었다. 남자는 20대, 10대, 30대의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20대, 30대, 10대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n Sex, Age

	Male	Female	Total
0-10 years old	4	3	7
11-20	7	9	16
21-30	17	38	55
31-40	4	12	16
41-50	4	1	5
51-60	0	1	1
Total	36	64	100

2. 유병기간별 분포

유병기간은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30년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유병기간은 4.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은 1-5년인 경우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15명, 10년 이상이 11명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인 경우는 총 16명 이었으며 그 중 6개월 미만은 10명, 6-12개월은 6명이었다 (Table 2).

Table 2. Duration of Warts

Duration of Warts	Number
< 6 months	10
6-12 months	6
1-5 years	58
6-10 years	15
>10 years	11
Total	100

Table 3. Distribution on Subtype of Warts

Classification	Number
Verruca plana (Vp)	48
Verruca vulgaris (Vv)	25
Palmoplantar wart (Pw)	2
Vv + Pw	14
Vp + Vv	9
Vp + Vv + Pw	2
Total	100

3. 사마귀 종류별 분포

한가지 종류의 사마귀로 내원한 환자는 75명이었고, 그 중 편평사마귀(Verruca plana)가 48명, 심상성사마귀(Verruca vulgaris)가 25명, 수장족저사마귀(Palmoplantar wart)가 2명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이상의 사마귀가 동시에 발생한 환자는 25명이었고, 그 중 심상성사마귀와 수장족저사마귀가

병발한 경우가 14명, 편평사마귀와 심상성사마귀가 병발한 경우가 9명, 세가지 사마귀가 모두 발생한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심상성사마귀 병변 분포

심상성사마귀가 발병한 50명 중에서 손에만 발생한 경우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과 발에 모두 발생한 경우가 15명, 발에만 발생한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n Lesion of Verruca vulgaris

Lesion	Number
Hands	27
Hands + Feet	15
Feet	8
Total	50

5. 편평사마귀 병변 분포

편평사마귀가 발병한 59명 중에서 얼굴에만 발생한 경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얼굴과 사지에 발생한 경우가 13명, 사지와 몸통에 발생한 경우가 5명, 몸통에 발생한 경우가 4명, 얼굴과 더불어 몸통과 사지에 모두 발생한 경우가 3명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n Lesion of Verruca Plana

Lesion	Number
Face	30
Face + Extremities	13
Extremities + Trunk	5
Trunk	4
Face + Extremities + Trunk	3
Extremities	2
Face + Trunk	2
Total	59

6. 타의료기관 및 민간요법 이용 경험

피부과에서 사마귀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본 환자가 73명이었고 피부과에서의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가 27명 이었다.

의료기관 및 민간요법 이용 경험을 중복으로 처리한 결과 총 184건이 조사되었고, 피부과에서 받은 치료 중에서는 레이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냉동치료 24명, 면역요법 21명, Salicylic acid 요법 20명, 주사요법 8명, Imiquimod 크림 7명, Cimetidine 고용량 투여요법 3명, 기타 약물치료 경험 6명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복용 및 침치료를 받아본 환자는 13명이었으며, 보조요법으로써 프로폴리스, 비타민, 울무 등을 복용해본 환자가 각각 14명, 10명, 9명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Previous Treatment

Treatment	Number
Laser	44
Cryotherapy	24
Immunotherapy	21
Salicylic acid	20
Injection therapy	8
Imiquimod	7
Cimetidine therapy	3
Pharmacological treatment	6
Korean medicine therapy	13
Propolis	14
Vitamin	10
Coicis Semen (Job's Tears seed)	9
The others	5

7. 치료기간

치료기간 조사 결과 35명의 환자가 1-4주간 치

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5-8주 30명, 9-12주 15명, 17주 이상 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Duration of Treatment

Duration	Number
1-4 weeks	35
5-8 weeks	30
9-12 weeks	15
13-16 weeks	8
17 weeks over	12
Total	100

Table 8. Distribution of Treatment

Treatment	Number
Herbal acupuncture	98
Herbal Medicine	91
Moxibustion	43
Acupuncture	42
Bloodletting	37

8. 치료과정

모든 종류의 사마귀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첩약 복용, 약침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심상성사마귀와 수장족저사마귀가 있는 경우에는 침구치료, 사혈요법을 병행하였다. 첩약 이외의 모든 치료는 매주 1회씩만 시행하였다.

첩약은 환자의 증상을 변증하여 藿香正氣散, 二陳湯, 人蔘敗毒散, 連翹敗毒散 등을 가감하여 투여하였고, 약침은 습담, 소염, 황련해독탕, Sweet BV 등을 선용하여 회당 0.1-1.0cc를 환부에 직접 주입하였다. 침구치료에 있어서 肺政格, 小腸政格, 大腸政格 등을 사용하고, 직접구를 환부에 3-5장 시술하였으며, 양측 복삼혈에 습부항을 하였다.

내원환자 100명 중 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는

98명, 첩약을 복용한 환자는 91명, 뜸치료를 받은 환자는 43명, 침치료를 받은 환자는 42명, 사혈요법을 받은 환자는 37명으로 나타났다(Table 8).

9. 첩약 복용량

첩약투여는 20첩 혹은 40첩 단위로 이뤄졌으며, 총 복용량은 40첩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80첩 19명, 120첩 17명, 20첩 8명의 순이었으며, 첩약복용을 하지 않은 환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Dosage(貼) of Herbal Medicine

Dosage(貼)	Number
120	17
100	2
80	19
60	3
40	42
20	8
0	9
Total	100

Table 10. Distribution of Clearance Rate

Response	Number
Complete clearance	43
Partial clearance	29
No change	28
Total	100

10. 치료효과

임상적으로 병변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완치, Complete clearance)가 43명, 병변의 크기나 숫자가 감소한 경우(호전, Partial clearance)가 29명,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무반응, No

change)가 28명으로 나타났다. 완치 환자의 경우 평균 9.92주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첩약 복용량은 평균 62.33첩이었다(Table 10).

고 찰

국내 의과대학의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피부질환에 대한 통계적 고찰을 살펴보면, 사마귀는 전체 피부과 외래 환자의 2.2-2.4%를 차지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15개 질환에 포함될 정도로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부질환임을 알 수 있다^{3,4,12)}. 하지만 사마귀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¹³⁾, 차¹⁴⁾, 손¹⁵⁾ 등이 발표한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피부질환 환자에 대한 보고에서는 사마귀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2-0.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피부과 영역에서 사마귀에 관련된 연구로는 윤⁹⁾, 정¹⁰⁾, 조¹¹⁾ 등이 편평사마귀 환자에 대한 치험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마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아직까지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마귀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제 저자들은 만 6개월간 브이스킨한의원 사마귀 클리닉에 내원한 100명의 신환을 대상으로 통계적 고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총 대상 환자의 성별 분포상 남자가 36%, 여자가 64%로 남녀 성비는 1:1.78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 환자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10대가 각각 16%, 10세 이하가 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방 대학병원 피부과에 내원한 환자 분포와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남녀 성비에 있어 박³⁾은 1:1.0, 최⁴⁾와 홍¹²⁾는 1:0.9 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연령별 분포의 경우 박³⁾과 홍¹²⁾은 10세 이하의 환자, 최⁴⁾는 1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소아기,

청소년기의 경우 양방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재발하거나 치료에 실패하여 성인기가 지 지속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요구, 새롭고 다른 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심미적 욕구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병기간은 조¹⁶⁾의 연구에서 심상성사마귀의 경우 1년 이내가 54.1%, 1년 이상이 45.9%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년 이내가 16%, 1년 이상이 84%로 나타났으며, 이중 심상성사마귀가 동반된 50명 중에서는 1년 이내가 12%, 1년 이상이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는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만성적인 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난치성, 재발성, 만성적 경향을 가진 환자군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귀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두가지 이상의 사마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25%에 이르렀고, 한가지 종류만 발생한 경우는 75%였으며, 편평사마귀가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심상성사마귀의 발병 부위에 있어서 조¹⁶⁾는 수부 병변이 47.0%, 수족 병변이 8.5%, 족부 병변이 37.0%, 김¹⁷⁾은 수부 병변이 38.12%, 수족 병변이 17.13%, 족부 병변이 44.75%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부 병변이 54%, 수족 병변이 30%, 족부 병변은 16%로 나타나 족부 병변의 비율이 낮고, 수족에 동시에 다발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방치료가 비교적 고가이므로, 보이지 않는 부위 보다는 상시 노출 부위에 발병한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수족에 모두 발생한 비율이 높은 것은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군이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군보다 다발성, 난치성인 경우가 많고 수족간에 전파가 이뤄질만큼 유병기간이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편평사마귀가 발병한 59명 중에서 대표적 호발 부위인 얼굴과 사지에 발생한 경우는 55명 (93.22%)이었고, 몸통에만 발병한 경우는 4명 (6.78%)으로 조사되었다. 박¹⁸⁾이 얼굴과 사지에 발생한 경우가 97.1%, 몸통에 발생한 경우가 2.9%라고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였으나, 박¹⁹⁾과 진²⁰⁾의 연구에서 편평사마귀 환자 전원이 얼굴, 목, 사지 등 노출부위에만 병변이 있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피부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73명이었고, 피부과에서 받았던 치료법들을 살펴보면 레이저치료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냉동요법, 면역치료, Salicylic acid 요법 등의 순이었다. 현재까지 서양의학에서 사마귀 치료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관적인 효과를 보이는 치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₂ 레이저, 냉동요법, 전기소작술 등은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보이는 대신 통증이 심하고 재발이 흔한 경향이 있으며 DPCP, DNCB을 이용한 면역요법은 통증이 적고 반흔이 거의 남지 않으며 재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소부위의 소양감, 발적, 부종, 수포를 일으키거나 전신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전신적 소양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7,18,20,21)}. 그 외에도 Cimetidine, Griseofulvin, Levamisole을 경구 복용하여 사마귀를 치료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다^{7,8,19-21)}.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개별 임상연구 및 복합 비교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치료수단으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한약복용 및 침구 치료를 받아본 환자가 13명, 프로폴리스, 비타민, 울무요법 등 민간요법을 시도해본 경우도 38건에 이르렀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 검증 및 객관적 연구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치료기간은 1-4주가 35%, 5-8주가 30%, 9-12주가 15%, 13-16주가 8%, 17주 이상이 12%였으며

통원치료를 하면서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는 98%, 첩약을 복용한 환자는 91%, 뜸치료를 받은 환자는 43%, 침치료를 받은 환자는 42%, 사혈요법을 받은 환자는 37%로 나타났다.

첩약을 제외한 침구치료, 약침치료, 사혈요법 등은 매주 1회씩 시행하였다. 약침 시술에 있어서 祛風濕, 清熱解毒, 소염, 항균, 면역기능 활성화 등의 목적에 따라 습담, 소염, 황련해독탕, Sweet BV 등을 선용하였으며, 사마귀 분포 상태에 따라 회당 0.1-1.0cc를 환부에 직접 주입하였다. 또한 肺氣가 부족하고 燥熱이 있는 경우는 肺政格, 血鬱이 있고 活血通絡해야 하는 경우는 小腸政格, 濕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大腸政格으로 침치료를 하였고²²⁾, 東醫寶鑑 肉門의 “凡贅疣諸瘡 當其上灸三五壯 卽差”에 근거하여 심상성사마귀와 수장족저사마귀 환자의 환부에 직접구를 3-5장 시술하였으며²³⁾, 사마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삼혈 양측에 습부항을 하였다²⁴⁾.

첩약투여는 20첩 혹은 40첩 단위로 이뤄졌으며, 총 복용량은 40첩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80첩, 120첩의 순이었다. 皮肉에 발생한 오래된 췌생물은 濕痰이 滯滯된 것이기 때문에 理氣和中 解表化濕할 수 있는 藿香正氣散, 燥濕化痰 理氣和中하는 二陳湯, 燥濕運脾 行氣和胃하는 平胃散 등을 가감하여 투약하였으며, 病勢가 급하고 병변이 붉거나 소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益氣解表 散風祛濕하는 人蔘敗毒散, 清熱解毒하는 連翹敗毒散 등을 가감하여 투약하였다²⁵⁾.

임상적으로 병변이 완전히 사라져 완치 판정이 된 경우는 43%였고, 완치에 이르기까지 평균 9.92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첩약 복용량은 평균 62.33첩이었다. 이는 심상성 및 족저사마귀에 개미산으로 30.7%의 완치율을 나타낸 윤⁵⁾, 편평사마귀에 Alexandrite 레이저로 28%의 완치율을 나타낸 이²⁶⁾, 심상성사마귀에 레이저와 냉동요법으로 36.3%를 완치한 조¹⁶⁾, 편평사마귀에 Cimetidine

투약으로 41.7%의 완치율을 나타낸 박⁷⁾, 편평사마귀에 Itraconazole 투약으로 40%의 완치율을 나타낸 진²⁰⁾의 보고에 비해 높지만, 심상성사마귀에 냉동요법으로 44.2%의 완치율을 나타낸 김¹⁷⁾, 심상성 및 족저사마귀에 냉동요법으로 47.2%의 완치율을 나타낸 윤⁵⁾, 손발톱주위 사마귀에 Cimetidine 투약으로 50%의 완치율을 나타낸 이⁸⁾의 보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는 계획된 임상연구 진행을 통해 치료순응도가 매우 높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병기간은 12.7개월에서 3.4년 정도로 본 연구의 4.6년에 비해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치료효과만을 관찰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고 사마귀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복용을 하지 않았던 9명, 한 번만 내원한 9명, 두 번만 내원한 12명 등 치료순응도가 불량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고찰을 하였고, 두가지 종류 이상의 사마귀가 동시에 발생한 비율이 25%에 이르렀으며, 심상성사마귀의 경우에도 손과 발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비율(30%)이 기존 연구에 비해 높았고, 피부과 치료 후에 효과가 없었거나 재발하여 한방치료를 시작한 비율이 73%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치료 효과 검증에 목표를 둔 새로운 연구 진행을 통해서 추가로 검증할 경우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례보고, 실험실 연구, 동물실험, 임상연구, 양방치료와의 비교연구, 이중맹검법, 실험군-대조군 실험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만 6개월간 사마귀클리닉에 사마귀로 내원한 신환 100명에 대해

여 성별, 연령, 유병기간, 사마귀의 종류, 병변부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효과 등을 분석,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자 36%, 여자 64%로 남녀 성비는 1:1.7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 10대의 순으로 많았다.
2. 유병기간은 1-5년, 6-10년, 10년 이상 순으로 많았다.
3. 두가지 이상의 사마귀가 동반된 경우가 25%, 한가지 종류만 발병한 경우는 75%였으며, 편평사마귀가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4. 심상성사마귀는 손에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편평사마귀는 얼굴에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 피부과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73%였고, 레이저치료, 냉동요법, 면역치료, Salicylic acid 요법 등의 순이었다.
6. 치료기간은 1-4주가 35%, 5-8주가 30%, 9-12주가 15%로 나타났다.
7. 첩약투약, 약침치료, 침구치료, 사혈요법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43%는 완치(Complete clearance)되었고 29%는 호전(Partial clearance)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전국 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피부외과학. 부산:선우. 2007:432-4.
2. 노석선. 원색피부과학. 서울:아이비씨기획. 2006:247-51, 264-5.
3. 박하나, 안성구. 강원지역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2000-2004).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9):1192-9.
4. 최현성, 윤석권, 김한옥, 임철완. 전북지역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1979-1980, 1987-2002).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5):606-18.
5. 윤선영, 강훈, 이정덕, 조상현. 개미산과 액화 질소 냉동요법을 이용한 사마귀 치료 효과의 비교.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3):325-30.
6. 박석열, 김창덕, 김창욱, 이규석. 색소 레이저 및 Bleomycin 병변내 주입 복합요법을 이용한 난치성 사마귀의 치료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5):638-42.
7. 박창욱, 정기양, 정우길. 시메티딘 고용량 투여 용법에 의한 편평사마귀 치료.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4):475-9.
8. 이영복, 박현정, 이준영, 조백기. 손발톱주위 사마귀에 대한 Cimetidine의 치료 효과 및 안정성. 대한피부과학회지. 2007;45(12):1258-64.
9. 윤정원, 윤소원, 윤화정, 고우신. 扁平疣의 治驗 1例 報告.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5):1070-4.
10. 정동환, 심상희, 최정화. 疣目환자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226-35.
11. 윤영희, 최인화. 편평사마귀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대한한의학회지. 2008;29(3):161-8.
12. 홍성호.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피부 질환의 통계적 고찰(1995-2001).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3. 정아름누리, 홍승욱.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피부질환 환자의 임상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51-60.
14. 차재훈, 김윤범, 남혜정.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3):169-80.
15. 손병국, 최인화. 서울 강동지역 소재 한방병원 피부과 내원환자의 질환 빈도에 따른 임상적 관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3):161-8.

16. 조한경, 강원형, 노병인. 수도권 신도시 보통사마귀의 특성.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46(7): 909-14.
17. 김정은, 김일환, 손상욱. 사마귀 치료에 대한 액화질소 냉동요법의 치료 효과 및 재발률에 대한 후향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6; 44(8):931-6.
18. 박종혁, 김성진, 이승철, 원영호, 전인기. 편평사마귀에 대한 DNCB와 DPCP 면역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7;35(6):1082-7.
19. 박창욱, 정기양, 정우길. 시메티딘 고용량 투여 용법에 의한 편평사마귀 치료. 대한피부과학회지. 2005;43(4):475-9.
20. 진원우, 김명화, 신용우. 편평사마귀에 대한 Itraconazole 경구 투여의 치료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46(1):46-9.
21. 정상원, 차승훈, 박석돈. Griseofulvin 내복과 면역요법(DNCB, DPCP)을 병용한 편평사마귀의 치료.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7(3):320-4.
22. 김관우. 솜岩鍼法 隨想錄. 대전:초락당. 2006: 139-41, 206, 312-3.
23.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1999:745.
24. 이방원. 鍼灸精要. 서울:일중사. 2002:182.
25.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공편저. 方劑學. 서울:영림사. 1999:96, 486, 488, 528, 589.
26. 이미우, 최지호, 성경제, 문기찬, 고재경. Alexandrite 레이저를 이용한 편평사마귀의 치료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0;38(7):864-7.